

현대시

이제 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현대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보기의 기준만으로 시를 읽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읽는' 것이다. 여기서 반론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현대시는 상징들이 많고 비유들도 많은데 그럼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등등으로 반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물론 상징이 많고 비유도 많지만 이는 본인이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기>에서 제시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시의 내용과 문제, 시와 내용과 보기를 연결하며 푸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 협약은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10 시까지 들어가게 했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협약'에 대해 억압적이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만큼은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관계없이 '보기'와 '출제자'가 그 협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집중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만약 '보기'에 그 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 생각이 긍정적이더라도 우리는 그 협약을 부정적인 용어, 즉 △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말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밑에 예시 문제를 첨부하겠습니다.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개와 나의 호자는 문제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른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같이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 별생각없이 읽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기와 연결하여 독해해보면
보기 중 '기만적인 통치술에 해당'

우리를 켜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보기에서 말한
대중에 대한 획일적인
지배를 나타냄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이성대비, 획일적인 지배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